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7. 8(목)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6월 30일
-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2004. 7. 7)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 제안이유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임

나. 주요골자

-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3조의2)
 - 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라)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9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 3)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8조)
- 4)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해수)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 사항과 토요일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휴무일수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휴가일수 1-2일 축소 및 산모 배우자 휴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개정안으로,
- 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 구체화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규제사항을 지방자치법규인 동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대다수 공직자는 비밀엄수 조항 신설이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고 포괄적인 규제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안 제13조 근무시간 개정안은, 정부의 전 국민 주5일근무제를 200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월 1회 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 하고자하는 과도기적 근무시간의 정착 및 안정화의 한 방편과,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나, 중식시간을 근

무의 연장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17시만 되면 어두워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민원인도 어두운 밤 시간대에 관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일 것이며, 또한, 토요일휴무제 전면 시행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금년부터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 공직자는 동 조례안의 연장 근무시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 안 제18조 제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안에서는, 토요일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보전의 수단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2일 단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연가일수를 최고 연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은 23일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도 못 미치는 연가일수임에도, 토요일휴무제 실시보전 방안으로 연가 일수를 미리 축소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임.
- 안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실시와 안 제18조 출산 배우자 휴가 일수 개정안은,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며, 공직자의 육아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서 볼 때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임.
- 동 개정 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 복무조례는 공직자의 성실 근무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전체 공직자의 사기진작의 문제로 전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신설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요한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할 법규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사항과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 사항은 주5일근무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근

로 복지향상에도 크게 후퇴하여 공직자 근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개정 조항으로 우리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직자의 근무시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주5일근무제 시행 과도기의 문제점 이기는 하지만, 동절기 미 도래와 연가 축소 시행도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여유 기간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의 등의 조율을 거쳐 재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시 동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